

# “문화전당 성공, 정부 안정적 지원 필요”

## 카트린 다비드 풍피두센터 현대미술관 부관장 단독 인터뷰

“광주와 같은 대도시에도 아직 1960~70년대의 정취가 묻어나는 재래시장이 남아 있는 건 문화도시로서는 큰 매력입니다. 작가의 스튜디오 옆에 비릿한 냄새가 풍기는 생선가게와 모던한 분위기의 커피숍이 자리한 것을 보면서 마치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최근 문화전당내 문화창조원 복합3관(총감독 박 경)의 개관 기념 전인 ‘이곳, 저곳, 모든 곳 : 유라시아의 도시’를 둘러보기 위해 광주에 온 카트린 다비드(60) 풍피두 센터 현대미술관 부관장은 27일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 앞서 방문한 대인예술시장의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 5일간의 짧은 방문기간동안 그녀는 문화전당 공식개관식과 재래시장, 미술관 등을 돌며 예향광주의 맛에 푹 빠졌다.

—먼저 문화전당의 시설을 둘러본 소감이 궁금하다

▲전구인 박 경 감독에게 전해 들은 광주는 150만 여 명이 사는 대도시였다. 때문에 그 도시에 건립된 문화전당 역시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고층건물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물 흐르듯이 주변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세련된 감각의 문화전당 건물과 인근의 노후화된 빌딩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인상적이었다.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지향하는 문화전당의 컨셉은 어떤가?

▲전 세계에 복합문화공간이 많지만 아시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주제로 한 메가시설은 문화전당이 단연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풍피두 센터의 경우 현대미술관, 칸딘스키 도서관, 공공정보도서관, 산업디자인작업센터(CDI), 음악·음향연구소(IRCAM), 어린이 체험관 등 5개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없다. 하지만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 문화원 등 5개 기관이 ‘아시아’라는 틀 안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화전당은 그 자체만으로 큰 경쟁력인 것 같다.

—풍피두센터가 하루 평균 2만5000명의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 데는 화려한 현대미술 컬렉션을 빼놓을 수 없다. 컬렉션이 없는 문화전당으로서서는 부러운 얘기다.

▲너무 부러워 할 필요는 없다.(웃음) 물론 풍피두센터의 컬렉션은 양과 질에서 뉴

### 기업 협찬에 의존하면

### 그들 입맛 맞는 기획해야

### 광주, 문화도시로 큰 매력

### ‘아시아’로 연결된 5개관

### 또 문화플랫폼 역할 충분

육현대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수하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미션은 이들 미술관과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문화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플랫폼만 만능 고유의 미션에 걸맞은 양질의 기획전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 들이면 된다. 무엇보다 문화전당에는 수년동안 수집해온 아시아 각국의 실화와 신화 등의 방대한 아카이브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화원형들을 문화언어로 해석하고 예술적인 콘텐트로 구현하면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제 막 첫발을 댄 문화전당에게 조언을 한다면

▲문화전당의 공적 미션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국립기관인 풍피두 센터의 경우 근래 예산이 삭감되면서 기업들의 기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협찬을 끌어 모으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이들의 입맛에 맞는 전시회를 기획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이



### 카트린 다비드는

- 1954년 파리 출생.
- 역사학자·큐레이터.
- 파리 소르본과 예콜 드 루브르에서 스페인·포르투갈 문화와 미술사 전공.
- 1981~1990년 풍피두현대미술관 큐레이터, 1990~1994 주드폼 국립미술관 큐레이터, 10회 카셀도큐멘타의 최초 비독일인 큐레이터.
- 2002~2004년 로테르담 현대미술관 관장.
- 2009년 리옹비엔날레 예술감독.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수 복합리조트 막판 신청서 접수

## AOL통상 컨소시엄, 5억달러 유치 협약 등 추후 보완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조성에 투자할 양을 밝힌 3개 컨소시엄 가운데 ‘한국 AOL통상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RFP)를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5억 달러 투자유치 협약서’, ‘5000만 달러 선납’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조건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조건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지역 6개 업체 가운데 조건을 충족한 업체가 인천의 단 2 곳에 불과해 여수 경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추후 자격을 충족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내년 2월 여수 경도를 포함해 인천, 경남 진해 등 제안서를 낸 6곳 중에서 1~2곳의 복합리조트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9일 전남도와 문체부 등에 따르면 한국 AOL통상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지난 27일 오후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제안서를 문체부에 접수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중국의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싱가포르 이톤(Iton), 국내의 마제스타 카지노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특수목적법인(SPC) 여수해양관광개발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 경도 이외에 4개 지역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인천 영종도 국제업무지구(IBC-II)의 사업자 모히건설-KCC 컨소시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2) 사업자 임페리얼 퍼시픽 등 2곳만 5000만 달러 납입 조건을 충족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5억 달러 외자 유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투자 규모가 2조5000억원에 투자해 2000실 규모의 숙박시설, 카지노, 아쿠아 테마파크, 마린나, 케이블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6월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 컨셉트제안서(RFC)를 제출했던 평강도가추과 여수경도관광래저 컨소시엄은 중국 투자자 이탈에 따른 컨소시엄 결렬과 5억 달러 이상의 외자유치 실패 등의 사유로 사업 제안을 포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영암무화과·보성별교꼬막 특화발전특구 지정

### 중기청, 5년간 588억 투입

중소기업청에서 신규로 지정한 7개 지역특화발전특구 가운데 영암무화과 산업특구와 보성별교꼬막문화산업특구가 포함됐다.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암무화과산업특구에는 무화과 생산시설 현대화, 식품산업육성,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32억원이, 보성별교꼬막문화산업특구에는 꼬막양식, 가공, 판매시설 확충, 어촌 체험관광 등 6차 산업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456억원

이 각각 투입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각각 184억원의 생산유발 및 199명의 고용 창출, 798억원의 생산유발 및 407명의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에는 전국 172개의 특구 중 19.19%에 해당하는 33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지난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남은 영광 보리산업, 화산 백신, 보성 녹차, 강진 고령차 등 4곳이 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구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 사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이 전남의 풍부한 지역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이어져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

## 주말·휴일 문화전당 2만 인파

### 어린이문화원·문화창조원 인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 첫 주말·휴일 이틀 동안 모두 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공식 개관한 문화전당에 지난 28일 모두 1만5239명(중복 관람 인원 포함)이 방문했고 29일(오후 2시 현재)에도 5500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식 개관일인 지난 25일에는 모두 3만여

명이 문화전당 5개원(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창조원, 정보원, 예술극장)의 콘텐츠(전시·공연 등)를 즐겼다.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한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창조원의 대표적인 공간인 복합1관(별칭 The Ground)에는 관람객이 몰렸다.

이 공간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디어 작가 로지 이케다(Ryoyi Ikeda)가

창작한 ‘테스트 패턴 no.8’(Test Pattern no.8)이 선보였다.

이 전시는 문자로 이뤄진 텍스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0과 1, 이진수로 변환하여 바코드 형태의 패턴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민주평화교류원) 1층에서 열린 ‘2015 아시아 스토리 페스티벌’도 눈길을 끌었다. 중앙아시아의 민담과 설화 등 옛 이야기가 한국 그림 작가들의 손을 거쳐 디지털 그래픽으로 선보이는 전시였다.

/\*윤영기자 penfoot@

## 내달 11일 남북 차관급 회담

남과 북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감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넷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